



개인연금상품 비교정보 제공 현황과 과제

김세중 연구위원

개인연금상품은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업권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 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개인 연금상품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중요함. 그러나 현재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상품 정보는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개인연금 가입자의 상품변경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됨. 따라서 표준 서식 및 공통 지표 마련은 개인연금상품 간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개인 연금 가입자의 적극적인 상품 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별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이외에도 독일 리스터 연금의 사례와 같이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상품별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2019년 2월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상이한 금융상품에 대해 수익률과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업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인연금의 정보 비교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펀드, 보험, 연금저축 등 각 금융상품에 대해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유사한 금융상품 간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 관점’의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서식 및 공통 지표(Factor) 마련을 추진함
 -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상품의 경우 다양한 업권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유사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표준 서식 및 공통 지표의 마련은 상품 비교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됨
- 개인연금상품은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업권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 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개인연금상품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중요함
 - 개인연금상품은 업권별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다양한 업권과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 선택을 해야 함
 - 2016년부터 개인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수익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연금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개인연금상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권과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에 대한 비교가 용이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상품 정보는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개인연금 가입자의 상품 변경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며, 따라서 표준 서식 및 공통 지표 마련은 개인연금상품 간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인연금에 관한 정보 제공은 권역별로 분리되어 제공되므로 통일성이 낮고 수익률과 수수료에 대한 공시가 별도로 이루어지지만 상품명이 상이하게 기재되는 경우도 있어 정보의 정확성 또한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¹⁾
 - 현재 제공되는 개인연금상품 자료로는 상품 간 비교 가능성이 낮아 가입자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상품변경을 유도하려는 노력에 부응하기 어려움
 - 이에 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표준 서식 및 공통 지표(Factor) 마련은 개인연금상품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개인연금 가입자의 적극적인 상품 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별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이외에도 독일 리스터 연금의 사례와 같이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상품별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독일의 리스터 연금은 2001년 공적연금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감소한 급여수준을 개인연금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지급되는 연금임
 -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상품과 유사하게 연금보험, 펀드, 은행저축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공급됨
 - 독일의 경우 몇몇 보험상품 평가기관들이 리스터 연금상품의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개인연금 가입자가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리스터 연금상품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연금 및 재정계획 연구소(Institut für Vorsorge und Finanzplanung, 이하 'IVFP'라 함)가 있음²⁾
- IVFP는 2001년 설립된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대학교수, 회계사, 제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리스터 연금 평가는 수익과 비용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서비스의 질, 유연성, 투명성 등을 포함한 84개의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평가결과 상위 3개 회사를 5개 상품군으로 나누어 발표함
 - 예를 들어 사업비의 투명성 항목은 각 사업비 항목이 잘 구분되어 있고 투명한 경우 10점을 부여하고 각 사업비 항목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0점을 부여함

1) 이경희(2018), “연금저축상품 장기성과와 개선과제”, 연금학회 발표자료

2) <https://www.ivfp.de/>

- 평가결과 상위에 랭크된 보험회사는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상품 평가기관 Franke&Bornberg,³⁾ Stiftung Warentest⁴⁾ 등도 리스터 연금상품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Franke & Bornberg는 1997년 설립된 독립적인 보험상품 평가기관으로 2002년 리스터 연금 도입 시부터 연금상품에 대한 등급을 제공해 왔으며, 평가등급은 불충분부터 우수등급까지 7개의 등급으로 구분됨
 - 2017년에는 16개 보험회사의 리스터 연금상품을 4가지 유형(전통형, 신진통형, 하이브리드형, 보증된 하이브리드형)으로 구분하여 평가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전통형 연금의 경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평가결과가 분포됨
 - Stiftung Warentest는 1964년 설립된 독립적인 상품 평가기관으로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음식료품, 화장품 등 많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리스터 연금에 대한 평가는 연금보험, 펀드, 은행저축, 주택연금 등 네 가지 상품군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평가대상 상품에 대한 평가결과가 유료로 제공됨
-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은 상이한 업권에서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모두를 비교하기 어렵고 따라서 독립된 기관의 평가결과 제공이 보다 유용한 정보전달 수단이 될 수 있음
 - 연금저축 통합공시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우리나라 개인연금상품은 2018년 12월 기준 은행권은 신규판매를 중단하였고 생명보험 52개, 손해보험 30개 상품이 판매 중에 있으며, 연금저축펀드는 2000여 개에 달함
 - 개인연금상품은 공적연금,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주요 노후소득보장 수단이나 수익률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가입자 스스로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품공시 강화, 자유로운 상품 변경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
 - 하지만 수많은 개인연금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모든 상품을 비교하여 최적의 상품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독일 리스터 연금의 사례와 같이 독립된 평가기관을 통한 정보의 제공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kiri**

3) <https://www.franke-bornberg.de/unternehmen-karriere/geschichte>

4) <https://www.test.de/>